

빈곤 가구 청년의 자립과정과 빈곤을 벗어난 이후의 삶에 관한 사례연구*

최하영** · 이소민*** · 이은형****

Ⅰ 알기 쉬운 개요

현대사회의 청년들은 비정규직, 실업, 높은 주거비와 학자금 대출의 압박 등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있으며, 많은 부모들은 자녀의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가족에게 지원받기 어려운 빈곤가정 청년들은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하고 불안정한 고용 지위에 떠밀릴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빈곤가정 청년 중에서도 성공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룬 사례가 있어 이들의 자립과정을 연구하여 빈곤가정의 청년을 어떻게 지원하면 되는지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빈곤 자체가 자립과정에서 삶의 방향성과 정체성,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청년들은 희망과 유대감 등을 통해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을 길렀다. 그러나 빈곤은 직업, 교육 등에서 선택의 기회를 제한하였고, 위축, 두려움 등 부정적인 심리를 가져왔다. 심지어 청년을 지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양해야 할 대상으로서 부담이 되는 가족을 원망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현재 삶에 대한 만족은 자립과정에서 가졌던 직업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했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청년기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진로 설계 및 취업 지원이 필요하고, 부모에 대한 부양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청년 대상 심리적·정서적 지원 확대가 검토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BK21 FOUR '공정한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혁신과 협력 역량을 갖춘 통합형 인재양성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정책협동과정 박사과정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과정, 교신저자,
somin0219@gmail.com

**** 광진복지재단 정책개발팀 연구보조원

투 고 일 / 2021. 12. 5.

심 사 일 / 2022. 3. 7.

심사완료일 / 2022. 3. 18.

DOI/10.14816/sky.2022.33.2.29

Ⅰ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청소년기 빈곤을 경험한 청년들의 자립 과정과 빈곤을 벗어난 이후 삶을 탐색하여 빈곤 가구 청년의 지원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함에 있다. 이를 위해 경제적 독립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에서 탈수급한 청년 4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분석 결과, 유년시절 빈곤 경험은 자립 과정과 탈수급한 이후 삶에서 연구참여자들에게 빈곤 탈출을 촉진하는 기제 혹은 자립 과정의 장벽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빈곤 탈출을 촉진하는 기제로서 빈곤은 자립 과정에서 삶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정립하게 만들었고, 희망과 유대감 등의 긍정 심리를 통해 역경을 극복하는 내성과 탄력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 반면, 빈곤은 자립과정에서 어려움을 주기도 하였다. 빈곤으로 인해 선택의 기회가 한정되었고,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해 휴식이 부재하여 고단한 시간을 보냈다. 또한, 심리적 위축, 약점 노출에 대한 두려움 등의 부정적인 심리·정서 형태가 발현되었다. 더 나아가 빈곤은 가족에 대한 부양 부담을 가져와 이로 인해 일부 연구참여자는 가족을 원망하는 등 부모에게 예측된 존재가 아닌 독립된 자아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유발하였다. 빈곤을 벗어난 이후에는 자립 과정에서 가졌던 기대감을 성취했는지에 따라 자신의 삶을 긍정하는지 여부와 삶의 만족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빈곤 가구 청년의 긍정 기제를 강화하고, 자립 과정에서 부딪히는 장벽이나 어려움을 감소시키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청년, 빈곤 가구 청년, 탈수급 청년, 사례연구, 질적연구

I. 서 론

현 우리나라 청년은 그 어느 때보다 학력이 높은 세대이지만, 저성장, 높은 청년실업률, 주거비와 학자금의 압박 하에 생존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 상급학교 진학률¹⁾은 교육통계가 존재하는 시기인 1980년 27.2%부터 시작하여 2008년 83.8% 최고점을 기록하였는데(e-나라 지표, 2021a), 2008년도에 고등학교에서 상급학교에 진학했던 청년이 대략 첫 직장에 취업할 시기인 2010년부터 2014년도 사이의 가장 낮은 청년실업률²⁾은 2012년 7.6%였으며 2014년도에는 9.0%를 기록하였다. 청년실업률은 그 이후 연도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졌고, 2016년과 2017년 청년실업률은 모두 9.8%로, 이는 IMF 직후 청년실업률이 12%대까지 도달했던 시기 이후 최고 높은 수치이다(e-나라지표, 2021b). 이마저 IMF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비정규직 근로 형태를 취업상태로 포함한 수치로 청년의 불안정한 상황을 완벽하게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높은 청년 실업률을 기록한 사이, 무한 경쟁에 뛰어난 청년은 타 경쟁자 대비 조금이라도 우위를 점하고자 일차적으로 가족자원에 의지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강한 가족주의 전통 아래 부모들은 자녀의 '성공'을 위해 필요 자원을 아끼지 않으며 가족자원으로 연장된 생애주기를 사는 청년은 그나마 나름의 '스펙' 쌓기에 몰두할 수 있어 안정된 성인기에 진입할 수 있다. 그러나 빈곤가정의 청년들은 가족자원의 결핍 혹은 부재로 더 나은 직업 기회를 위한 충분한 훈련을 받지 못하고 현실과 타협하게 되어 불안정 고용 지위에 떠밀릴 수밖에 없다. 실제 국내에서 진행된 다수의 연구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그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빈곤 지위 탈피가 어렵다고 보고한다(김교성, 노혜진, 2011; 노혜진, 2012; 손병돈, 2017; 최필선, 민인식, 2015). 최필선과 민인식(2015)이 부모의 소득과 교육수준이(자녀가 중학교 3학년 당시) 추후 자녀의 수능성적과 청년기 월평균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부모 소득수준과 학력이 높을수록 수능성적도 높았으며, 청년기 임금도 높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모의 소득이 소득 5분위일 때 자녀가 4년제 대학에 입학한 비율은 68.7%였지만 부모의 소득이 1분위인 경우 자녀가 4년제 대학에 진학한 비율은 30.4%에 그쳤다. 또한, 부모가 전문대 대졸 이상일 때 자녀의 수능성적이 1-2등급인 비율은 20.8%였지만, 부모가 고졸 미만이면 자녀의 수능 성적이 1-2등급인 비율은 0.8%밖에 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처럼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적용되기 어려운 시대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빈곤의 대물림에서 벗어난 청년 사례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일차적으로 자립 과정에서 나타난 긍정적 기제 및 환경, 자립과정에서 부딪힌 어려움 및 적응 결과를 탐색하고, 빈곤을 벗어난

1) 당해연도 고교 졸업자 중 상급학교 진학자 / 당해연도 고교 졸업자 x 100

2) 청년의 연령 기준: 15-29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현재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관찰하고자 한다. 즉,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난 이후엔 현재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떤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빈곤을 벗어난 이후에도 미충족된 욕구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현재 빈곤 가구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및 청년에게 필요한 지원을 도출해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제도를 제언하고자 한다.

빈곤한 가정에서 성장하였으나 경제적 자립을 이룬 청년들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다. 주로 현시점에도 빈곤한 ‘빈곤 청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뤄왔으며 이마저도 청년들의 빈곤실태 및 빈곤특성(최은영, 이봉조, 2014; 김태완, 최준영, 2017; 김문길 외, 2017), 빈곤요인(변금선, 2012; 김비오, 2019) 등을 양적으로 탐색한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하여 ‘현시점의 빈곤’을 타개하기 위한 논의만 이뤄졌다.

그러나 빈곤은 빈곤을 벗어난 이후에도 개개인에게 지속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allup World Poll 자료를 활용하여 131개국의 102,583명의 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 빈곤은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정서상태를 유발하며 습관적인 행동을 선호하게 함으로써 근시안적이고 위험회피적 성향(risk-averse decision making)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aushofer & Fehr, 2014). 이처럼 빈곤의 영향은 빈곤에 노출되었던 특정 기간뿐만 아니라, 빈곤 탈출 이후에도 인생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가할 수 있으므로 빈곤을 탈출한 이후에 나타난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탐색하는 것 또한 의미가 있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청년의 완전한 사회·경제·심리적 자립을 위한 지원제도의 설계와 정책적·실천적 제언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생성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빈곤의 정의와 빈곤의 영향

빈곤이란 한 사회에서 집단 혹은 개인의 소득수준이 낮아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이다(안병영, 정무권, 신동면, 양재진, 2019). 빈곤은 시대별 혹은 학자별로 다르게 정의되었는데, 절대적 빈곤(absolute poverty) 혹은 상대적 빈곤(relative poverty), 주관적 빈곤(subjective poverty) 등으로 구분되어왔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년에 그간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된 ‘최저생계비’ 대신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상대적 빈곤개념을 도입하였으며(보건복지부, 2021a) OECD에서는 평균소득(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빈곤선으로 설정하는 상대적 빈곤 방식을 활용한

다. 본 연구는 현시점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시기상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전 ‘최저생계비’에 의해 수급 여부가 결정되던 시기에 수급 가구에서 성장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아동·청소년기 빈곤은 성인이 되어서도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다수의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Lesner, 2018; Duncan, Ziol-Guest & Kalil, 2010; Johnson & Schoeni, 2011). 해당 연구들의 초점은 주로 세 분야의 영향으로 나뉜다. 첫째는 아동·청소년기 빈곤의 결과로 나타나는 심리적·정서적 또는 행동적 차이(behavioral difference)이다. 심리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아동·청소년기 빈곤의 부정적(detrimental) 영향을 설명하는 것에 가족관계의 질에 초점을 맞췄는데(Duncan, Ziol-Guest & Kalil, 2010) 이러한 이론적 모델은 가구의 빈곤이 직접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가구의 경제적 열악함이 부모의 심리적 안녕(well-being)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즉, 더욱 풍족한 가구소득이 부모의 심리적 안녕, 특히,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개선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Chase-Lansdale & Pittman, 2002; McLoyd et al., 1994). 다른 연구들은 빈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었다. 발달 심리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은 빈곤이 신체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강조한다. 즉, 더 나은 보육 환경, 영양가 높은 식사 등과 같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 자원을 구입할 수 있는 부모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Becker, 1981).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성취(labor market outcomes)에 대한 영향이다. 인적자본투자론에 근거한 연구들은 가족의 투자가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시기의 소득을 증대시킨다고 본다. Hill과 Sandfort(1995)는 아동·청소년기 낮은 가구소득이 사회 정서적 기능 및 인지발달과 같은 아동의 성취를 제한하며, 이는 학교를 중퇴할 확률을 높인다는 것을 밝혔다. 아동·청소년기 낮은 교육 투자 수준은 자녀의 역량(skill)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직업 선택 가능성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이처럼 아동·청소년기 빈곤의 영향은 빈곤했던 과거에만 남아 있지 않으며 당사자에게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2. 빈곤 가구 청년의 자립

자립이란 사전적 정의로 남에게 예속되거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심리적 혹은 경제적 측면 등 어느 부분에 있어 스스로 선다는 것은 관점이나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무엇보다 기존의 예속적 관계에서 벗어나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상태’가 자립의 핵심일 것이다. 국내에서 진행된 선행연구들에서는 자립과 독립이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김희성(2002)은 자립이란 자신의 힘으로 독립하여 정당한 지위에 오르는 것을 의미하며, 신혜령

(2001)은 대인관계나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이 가능한 심리적·사회적·경제적 독립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직업을 얻어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자립보다 정신적 자립이 중요시되기도 하며(최아람, 2012) 생계유지에 있어 책임을 지고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자립을 강조하기도 한다(오수생, 변상해, 2012). 시각에 따라 자립의 견해에 차이가 있으나 사전적 의미가 예측적 관계를 벗어나 스스로 선 상태를 의미하고, 선행연구들이 자립의 요소에 독립된 경제적 능력을 포함한 것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 자립이란 경제적 능력과 직업이행을 기반으로 생계유지의 책임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자립과정이란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 즉, 빈곤가구 청년들이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황적 맥락을 담고자 하였다. 자립과정에는 자립을 위한 '지속적인' 과정 의미가 담겨있으며, 인터뷰 과정에서 밝혀진 연구참여자들의 청소년기 혹은 청년 초기의 가장 주된 목표가 "빈곤 탈출"이었기에 본 연구에서 또한 이를 반영하여 빈곤 탈출을 위해 청년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자립과정의 의미로 해석하였다.

국내에서 자립에 대한 논의는 주로 빈곤 가정 혹은 빈곤한 상황에 처한 사람의 자립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룬다. 빈곤 가정의 청소년의 자립 준비(김희성, 2002), 시설퇴소 아동 및 청소년의 자립(신혜령, 김성경, 안혜영, 2003; 신혜령, 2001), 한부모의 자립과 자립의지(김지혜, 김희주, 2018; 안경천, 김현진, 2018), 그리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우주형, 2006; 정연수, 이영선, 김승현, 박원희, 2014)이 이에 해당한다. 청년의 자립에 대한 연구는 연령대만 조금 달라졌을 뿐 아동보호 체계로부터 보호가 종료된 시설 퇴소 청년들의 자립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뤄왔으며(이상정, 2021; 안희란, 이용교, 2020) 가정에서 성장한 청년들의 자립에 대한 연구는 소극적으로 이뤄졌고, 이에 더해 빈곤한 가정에서 성장하였으나 빈곤한 상태를 벗어나 경제적으로 자립한 청년들에 관한 연구는 더욱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현시점에 빈곤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소수의 질적연구(정수남, 권영인, 박건, 은기수, 2012; 최상미 외, 2019)를 통해 빈곤 가구 청년들의 삶과 자립과정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최상미 외(2019)는 당시 수급가구 청년 11명에 대한 집단 심층면접을 통해 빈곤 청년의 삶을 탐색하였다. 청년들은 가족의 빚, 가족 부양과 같은 가족요인 등으로 인해 자립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었으며, 청년들은 낮은 책임감, 불안감, 무기력감 등으로 심리·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한 측면을 보였다. 또한, 빈곤 청년들은 가정에서는 자녀로서의 역할, 학교에서는 학생으로서의 역할, 일터에서는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압축적으로 해내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수남 외, 2012).

위의 연구들은 빈곤을 경험한 청년들의 공통적인 문제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나 현시점에도 빈곤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뤄졌기에 빈곤을 극복한 청년들의 삶과 자립 과정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정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기반으로 빈곤을

탈출해 경제적 자립을 이룬 청년들이 자립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준 기제와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빈곤을 벗어난 이후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 이들의 자립 과정, 빈곤 탈출 후에도 미달성된 욕구를 파악한다면 빈곤 가정 청년 자녀의 자립 메커니즘의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빈곤 가구에서 성장하였으나 빈곤을 벗어난 청년들의 자립 과정을 탐색하고, 빈곤을 벗어난 이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과거에 빈곤을 경험했던 청년들이 과거와 현재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자립과정은 어떠한 것인지 탐색한 연구는 국내에 전무하며 현시점에도 빈곤한 빈곤 청년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뤄왔다. 따라서 연구의 핵심 주제에 관해 탐색한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내용과 맥락을 발견하는데 있어 질적 연구방법이 적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본 연구가 질적 연구방법 중에서도 사례 연구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연구는 특정 집단의 대상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연구목적과 관련된 모든 문제나 변수를 파악하고 전체 집단과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조사 방법이다(Heale & Twycross, 2018). 또한, 사례연구는 각 연구참여자의 개인적 속성(사례 내 속성)과 더불어 전체 참여자의 공통적 속성(사례 간 속성)을 묶어 도출할 수 있어 집단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 둘째, 사례연구는 맥락 속에서 사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집중탐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홍미연, 조미경, 2018). 본 연구에서는 빈곤 내에서 성장한 시기와 빈곤을 벗어난 시기에 일정한 시간적 경계가 있다. 사례연구는 분명한 시간적 경계를 지닌 사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하는데 용이하므로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사례연구는 빈곤했던 아동·청소년기를 지나 청년기를 기점으로 빈곤을 탈출한 특성이 있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사례의 공통적 상황(사례 간 속성)을 탐구하고 규명하는 데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빈곤이 자립과정 및 자립 이후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아동·청소년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수급 가구에서 학업·직업 이행으로의 성과를 달성하고 현재 탈수급한 상태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시각 및 견해에 따라 심리·정서적 자립이 중요시되기도 하는데, 본 연구는 빈곤의 대물

림을 끊고, 독립적 경제 지위를 갖는 과정에서의 긍정적 기제 및 어려움 탐색을 일차적 연구목적으로 돕으로써 개인의 경제적 자립에 초점을 맞춰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아동·청소년기에 수급자였으나 청년기에 탈수급한 만 19~34세의 청년 4명을 의도적 표본추출(purposive sampling)과 눈덩이 표본추출(snowball sampling)을 통해 모집하였다. 먼저, 현재 근로활동 중인(근로 지속기간 1년 이상) 만 34세 이하 임금근로자(비취업자, 자영업자 제외) 중 아동기 혹은 청소년기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자였으나 현재는 탈수급한 청년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들을 모집하기 위한 연구 참여자 모집글을 청년 커뮤니티에 게시하였다. 이후 게시글을 통해 섭외한 청년을 기점으로 동일 조건의 지인 3인을 추가 섭외해 아래 표 1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처럼 눈덩이 표집으로 지인을 섭외하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연구참여자들은 동일 대학교 졸업생으로 비슷한 수준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표 1
연구 참여자 일반적 특성

참여자	성별	만 연령	학력	직업	가족 구성원	탈수급 시기
참여자 A	남	20대 후반	대학교 졸업	공공기관 사무직	부모, 형, 누나	대학교 2학년 (형 취업)
참여자 B	남	30대 초반	대학교 졸업	기자	형	첫 직장에서 월급 수령 후
참여자 C	남	30대 초반	대학원 졸업	변호사	어머니, 동생	대학 졸업 후
참여자 D	남	20대 후반	대학교 졸업	협회 사무직	어머니, 동생	첫 직장에서 월급 수령 후

2.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는 2021년 2월 1일부터 8일까지 1:1 심층 인터뷰를 통해 수집되었다. 표 1의 연구 참여자와 사전에 연락해 연구 참여자의 의향에 따라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조용한 장소(예. 카페의 독립된 자리 등)에서 만나 연구 목적과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개인정보 보안과 본인의 요구 하에 언제든지 면접 중단 및 취소가 가능함을 사전에 공지한 후 연구 설명서와 동의서를 교환하고 면접을 진행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연구자 두 명이 개별적으로 녹취하였으며 각자 참여자의 비언어적 행동과 상태를 노트에 메모하여 추후 자료 분석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뷰는 약 1시간~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수급 경험 및 탈수급 경험, 자립 과정, 자립 후 전반적인 삶의 형태를 묻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준비하여 해당 질문에 대해 연구 참여자가 자유롭게 구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질문지는

연구 참여자의 '기본 인적사항', '기초생활수급 가구 구성원으로서의 경험', '탈수급 후 경험', '가족관계 및 대인관계', '대학 생활', '구직 과정', '현재 삶의 만족도', '미래계획'을 주제로 구성하였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질적 사례연구 분석방법에 따라 진행하였다. 먼저, 총체적 내용을 파악하고자 연구자별로 녹취록과 현장 노트를 3~5회 반복하여 읽었다. 연구자가 각자 작성한 현장 노트 또한 연구자 간 공유하는 과정을 우선적으로 거쳤다. 사례들의 전체적인 맥락이 파악된 이후에는 사례별로 개별적으로 두드러지는 특징적 문장과 사례 간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나 유사한 문장들을 구분하며 의미 있는 문장들을 도출하였다. 이후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도출한 의미 단위들을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비교 및 분석하였다. 연구자 간 합의를 바탕으로 유사한 의미가 있는 단위들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사례 간 유사 개념을 도출하였다. 이후 공통된 개념들은 범주로 묶고, 그 범주들을 다시금 주제로 묶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분석결과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인터뷰 내용에 왜곡된 점이 없는지 파악하고자 인터뷰 참여자 전원을 대상으로 사후 검증을 완료하였다.

IV. 분석결과

아동·청소년기 수급가구에서 빈곤을 경험하였지만 성공적인 학업-직업 이행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룬 청년 4명을 대상으로 수급가구에서의 자립 과정과 빈곤을 벗어난 이후의 삶을 분석한 결과 4개의 범주와 총 7개의 개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자립 과정은 성장 과정, 자립준비 시 겪은 경험담에 대한 범주를 묶은 것이며, 빈곤을 벗어난 이후의 삶은 경제적 능력을 기반으로 생계유지의 책임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현재에 빈곤이 미친 영향과 잔존한 심리 및 성향에 대한 개념을 범주화하였다.

표 2
분석결과

주제	범주	개념
1. 빈곤가구에서의 자립과정	1) 빈곤 탈출을 촉진하는 기제와 환경	(1) 삶의 방향성 정립 - 노력은 생존과 인간적인 삶을 위한 돌파구 - 고소득, 안정적인 직장에 대한 갈망 - 삶의 가치관 정립
		(2) 심리적 욕구 충족 - 나아지고 있다는 희망 - 유대감으로 인한 심리 회복
	2) 자립과정에서 부딪힌 어려움	(1) 자립과정에서의 장벽 - 한정적인 선택의 기회 - 휴식이 없는 삶
		(2) 심리적 장벽 - 타인과의 지속 비교로 인한 심리적 위축 - 약점 노출에 대한 두려움 - 염세주의적 시각
2. 빈곤을 벗어난 이후의 삶	1) 자기수용적 모습	(1) 빈곤 탈출에 대한 긍정 - 독립으로 인한 만족 - 안정적인 삶 성취 - 계층 이동을 통한 자신감
		(2) 삶의 방향성과 일치된 직업
	2) 기대에 못 미치는 현재와 삶에 대한 부정	

1. 빈곤가구에서의 자립 과정

1) 빈곤 탈출을 촉진하는 기제와 환경

(1) 삶의 방향성 정립

참여자 모두 어린 시절 빈곤 경험이 자립과정에서 자신의 삶의 방향성 즉,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제로서 작용하였고 빈곤의 탈출을 촉진하는 동력으로써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적으로는 ‘노력’을 자신의 불안정한 삶의 돌파구로써 활용하였다는 점이 있었으며, 개별적으로 빈곤 경험이 이후 삶의 방향을 결정짓고 가치관을 정립하는 기반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① 노력은 생존과 인간적인 삶을 위한 돌파구

일부 참여자가 공통적으로 겪은 아동·청소년 시기의 빈곤 경험은 생존과 가난에서 탈출하여 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한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욕구를 증가시켰다. 이를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정적 자원 중 비용 없이 최대한 활용 가능한 수단으로서 학업적 노력을 기울이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학업적 노력이라는 수단을 선택하고 스스로의 가치관으로 삼은 계기는 참여자마다 달랐다. 참여자 A는 일류 학교에 가면 과외수업을 할 기회가 많아 어느 정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주변인들의 의견, 참여자 C는 부모의 수술로 인한 깨달음이 있었던 반면, 참여자 D는 부모의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선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는 삶의 기초를 자연스레 체득하고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여러 경험을 통해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행위가 자립을 달성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학을 일단 좋은 데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그냥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좋은 학교를 가면 과외 같은 걸 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벌어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간 것이 있고. (참여자 A)

2007년에 어머니가 이제 수술을 받으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뭐가 그때 기점으로 해서 ‘아, 이대로 가면 진짜 큰일 나겠다’ 싶어서 (공부를 했어요.) (참여자 C)

엄마는 항상 ‘우리 가족은 다 열심히 살아야 한다.’, ‘내가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일하는 거는 그냥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살아야만 하기 때문이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최고가 되진 못했지만 최선을 다하면서 기본은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자 D)

② 고소득, 안정적인 직장에 대한 갈망

연구참여자 중 일부는 고소득, 안정적 직장에 대해 언급하며 이상적, 경제적 지위를 획득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님 혹은 보호자의 불안정한 근로환경과 유년기 겪은 빈곤 경험으로 인해 경제적 자립 없이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불안한 삶을 경험하게 됨을 몸소 체득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상적, 경제적 지위에 대한 갈망은 빈곤을 벗어나기 위한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부모님의 직장이 안정적이거나 하지 않았으니까 (중략)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학교 가는 거나, 직장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 (참여자 A)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은 진짜 어릴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맨날 돈에 대해서 ‘네가 원하는 것, 네가 갖고 싶은 것, 네가 먹고 싶은 것을 해줄 수가 없다.’ 이런 소리를 평생을 듣고 살아서. 중학교 때 이후로 돈 잘 주는 직장에 취업해야 된다고. 어렸을 때부터, 중학생 때부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D)

③ 삶의 가치관 정립

일부 참여자는 빈곤 경험을 통해 가치관을 정립하여 삶의 방향성을 정하고, 자아를 확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참여자 A는 수급 경험, 공공·민간 지원 등으로 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방향 혹은 척도로 삼았다. 참여자 C는 정의(正義)에 대한 관념을 스스로 정립하여 이를 이루기 위한 삶의 경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도 하였다. 빈곤으로 인해 기회가 박탈되는 경험을 한 참여자 C는 기회의 평등에 대한 사회정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이를 이루는 방안으로 경제학, 법학 전공을 고려하는 등(로스쿨 입학) 스스로 정립한 가치관이 삶의 방향성을 정하는 데 작용하였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약간 지원을 많이 받고 자랐는데 ‘공적으로 좀 국가 전체 다수의 이익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참여자 A)

학부는 경제학과를 갔는데 갔던 것 자체가 어릴 때 돈이 너무 없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경제학적으로 ‘사람들이 돈 없어서 뭘 못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학과 선택을 하고. (참여자 C)

맞는 일을 맞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바꿔 말하면 정의란 무엇인가 같은데. 기회는 평등하고 결과는 효율적이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둘 중에는 전자가 더 무게가 있는 것 같아요. (중략) 이렇게 뭔가 원하는 게 있고 그게 다른 사람한테 힘이 있으려면 법률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그 정도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참여자 C)

(2) 심리적 욕구 충족

빈곤한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청년 사례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심리적 욕구를 충족해나가고 있었다. 이러한 심리적 욕구 충족방식들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적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극한 것으로 나타났다.

① 나아지고 있다는 희망

취업 준비 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단함을 겪는 상황에서도 어린 시절 더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때와 비교하며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긍정적인 심리로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상황 이해 노력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작용하며 역경을 극복하는 내성과 탄력성으로 발전하여 심리적 자립심을 기르는 모습을 보여준다.

엄청 어렸을 때는 집이 진짜 못 사니까 비닐하우스 같은 데 살았었고 이랬었는데. ‘그때 비하면 매우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마음 들을 때 ‘(취업 지원서) 하나라도 더 쓰자.’(라고 생각했어요.) (참여자 A)

② 유대감으로 인한 심리 회복

참여자 C는 자립 과정에서 비슷한 경제 사정을 가진 친구들과 관계를 맺는 것으로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서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진실한 이야기와 개인 사정들을 공유하여 내적 친밀감을 느꼈고 이러한 관계가 자립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민간지원)재단에서도 옛날에는 애들끼리 친해지라고 이것저것 자리도 만들어 주고 했었는데, 속 얘기 힘든 얘기 이런 거 다 했거든요. 뭐 그런 걸 좀 공유할 수 있어서 친해질 수 있었는데. (중략) 그 재단 친구들 같은 경우는 스무 살 때부터 친했는데, 이렇게 편할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으면 조금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참여자 C)

2) 자립과정에서 부딪힌 어려움

어렸을 적 빈곤 경험은 참여자들의 삶의 형태에 어려움을 겪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심리 및 성격 등을 발현시켜 자립 과정에서도 장벽으로써 작용하였다.

(1) 자립과정에서의 장벽

① 한정적인 선택의 기회

자립을 준비하는 시기에 어려운 가정 형편은 그들의 선택의 폭을 제한시켰다. 특히 고시 등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과정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바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장에 취직하거나 장학금과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학교로 진학하는 선택지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공무원 준비에) 들어가는 돈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바로 직장을 얻어서 할 수 있게 (했죠). 그냥 학교 다니면서 혹은 아르바이트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분야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직장 쪽으로 가는 게 더 편한 일니까요. (참여자 A)

로스쿨을 고른 게 은행 취업은 사실 고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대학생 때부터 집에서 돈 안 받고 장학금 받는 거랑 일해서 받는 거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졸업해버리면 그게(장학금) 없었거든요. 그래서 (고시 준비의) 불확실성에 몸을 던지기가 되게 무섭더라고요. (참여자 C)

돈이 좀 많았으면 친구도 더 잘 만났을 거 같고, 해외여행도 많이 가봤을 거 같고. 회계사든 세무사든 어떤 큰, 준비 기간이 긴 시험을 준비하는 도전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애초에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다 제한된 상태로 다녔고 대학을 되게 우울하게 (다녔어요). (중략) 가족이든, 정부 기관이든, 또 장학재단이든 어떤 식으로든 나에게 경제적인 지원만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참여자 D)

② 휴식이 없는 삶

연구참여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휴식 없는 삶’을 겪었다. 특히, 참여자 A의 경우 형의 취업(가구소득 증가)으로 대학교 재학 중 탈수급을 하게 되었는데 탈수급 이후 실질적인 자신의 경제적 여건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취업까지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겹쳐 피로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B는 취업에 집중하기 위해 취업준비 시기 직전보다 아르바이트를 덜 하였는데, 이때 생활비가 가장 부족했음을 토로했다. 참여자들은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턴, 아르바이트, 취직 준비 등을 동시에 해내느라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고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삶의 형태는 자립으로 향하는 과정을 힘들게 만들었다.

중간에는 인턴 하면서 (자소서) 썼었어요. 근데 쉬라고 하는데 쉴 수가 없잖아요. 사실 탈수급 청년이니까 누가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못해도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하고. 이러니까 사실 쉬기가 쉽지는 않죠. (참여자 A)

사실 늘 (돈에) 쪼들리며 살았긴 한데. (취업) 준비하는 기간에는 아무래도 좀 다른 때 비해서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덜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생활비에서) 부족한 면이 있었죠. (참여자 B)

(2) 심리적 장벽

① 타인과의 지속 비교로 인한 심리적 위축

빈곤하게 살아왔던 경험은 성장 과정에서 타인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가난한 자신’, ‘못난 자신’이라는 자아 이미지를 쌓게 하였다. 또한, 타인을 공감하거나 그들에게 친근감을 느끼지 못해 인간관계가 피상적인 형태로 형성되게 하였고, 해외여행 등의 행동을 결정할 때 가난한 내가 해도 되는지 생각하며 행동의 정당성을 자가 검열하게 만들어 심리적, 정서적인 성장을 이루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하였다.

수급자면 해외 이런 것도 함부로 못 가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뭔가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있지 않나.'라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참여자 A)

생활과학대에 잘 사는 사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존재 자체가 저라는 인간 자체가 굉장히 그 **관(생활과학대 건물명)만 가면 초라하고 작게 느껴져서 그 수업 듣는 시간 자체가 되게 힘들었어요. 일단 뭐 가난한 사람 어떻게든 티가 납니다. (가난한) 티가 나기 때문에 대학에서 친구 사귀는 데 좀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아요. (참여자 D)

참여자 C와 D는 본인과 유사한 경제 사정을 가진 친구들과 교류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유사한 경제 사정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함으로써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심리적 회복에 도움이 되기도 하였지만, 반면에 자신과 비슷한 경제적 상황에 처한 친구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보았을 때 본인의 어려움을 더 극명하게 드러나도록 하여 자립과정에 있어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빈곤하지 않은 사람과의 교류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지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여겨 사전에 스스로 인간관계를 한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와서는 잘난 사람 많더라고요. 잘 사는 사람도 많고. 주변에 이렇게 편한 친구가 별로 없어요. 제가 학교와 회사를 2년 넘게 다닌 것 같은데. 옛날 친구들이야 있지만, (인간적 관계가) 피상적으로 딱딱하게 사는 거 같아요. (참여자 C)

제 친구 중에 부자가 없는 이유도 아마 제가 그 친구가 부자기 때문에 그 꼴을 보기 싫어서.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힘들기 때문에 피해서... '그래서 유유상종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대인관계를 형성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여자 D)

② 약점 노출에 대한 두려움

어릴 적 수급자라는 걸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나 학교 선생님이나 의복 등을 통해 의도치 않게 이것이 드러난 경험이 매우 불쾌하게 받아들여졌음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낙인'에 대한 기억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심리적 방어형태로 표출되었다. 이러한 자기보호 심리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 '강한 모습'으로 변환되어 보여지기도 하지만(참여자 C), 솔직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방어적 형태가 친밀한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참여자 A)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어렸을 때 맨날 수급자나 생활보호대상자 이렇게 불렸었는데. 문제가 뭔지도 선생님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급식 지원받는 애들 손들어라 해 가지고. 그런 거 너무 싫었던 거 같아요. 부끄럽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가정형편이 어떤지를 사실 드러내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게 드러날까봐 약간 학교생활하면서도 계속 (어려움이 있었어요.) (참여자 A)

그때는 체육복이 저희 학교가 학년마다 색깔이 다른데 그 3년마다 디자인을 바꾸더라고요. 그때 저희 집은 그거 사기도 좀 아깝고 하나까 어디서 엄마가 얻어 오셔서 입었는데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다는 그게 보여지는 게 어릴 때는 되게 싫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C)

내가 가질 수 없는 것과 노력해서 할 수 없는 것 말고,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못 하는 걸 남한테 보이는 게 되게 싫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서 (책임감이 있는 거)가 아니라 약한 모습 보이기가 싫은 거 같아요. 제가 없어 보이는 거를 극도로 싫어해서. 엄청 친해도 제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이런 얘기 절대 안 하거든요. (참여자 C)

③ 염세주의적 시각

참여자 D는 기초생활수급 가정에서 자라난 자신에 대한 자의식이 강하고 이를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자의식은 내·외부적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민감한 반응과 부정적인 논리 전개를 도출하였고 이는 결국 염세주의적 시각을 가지게 하고,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주었다. 염세주의적 시각은 정서적 불안감과 사회에 대한 분노로 연결되어 자립을 힘들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들보다 감정이나 정서적인 불안정이 엄청 큰 거 같아요. 저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라 그런 거 같아요. 정서적인 불안정이 크니까 내·외부 자극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중략)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전이든 후든 큰 변화 차이는 없는데 애초에 기초생활수급일 때부터 ‘나’라는 인간에게는 그 악이 물들었기 때문에 검은 물이 너무나 깊게 들어서 생각과 사고 전반을 검은 물이 들어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참여자 D)

사실 사회적으로 좀 분노의 감정이 저는 되게 크고 많은 것 같아요. 힘들었다 가난했다 막 TV 연예인들이 뭐 힘들었다는 소리가 특히 굉장히 거북하고요. 사회 이슈에 대해서도 굳이 화내도 되지 않는 이슈에 대해서 더 화내게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 D)

(3) 가족관계에서의 장벽

① 가족에 대한 원망

선행연구를 통해 가족의 지원이 사회적 성공에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일부 참여자는 가족 자원의 부족이 본인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생각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 부모님을 향한 원망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자신이 자립을 준비하는 시기에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형편이 되지 않아 힘들게 살아왔고 탈수급한 현재도

자신의 경제 사정이 어려운 이유가 부모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더 나아가 그러한 부모님들을 지원해주지 않은 국가와 사회에도 원망과 불만을 표현하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가족에 대한 원망은 본인이 부모에게 예속된 존재가 아닌 독립된 자아로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유발하였고, 심리·정서적 자립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를 생각하면 되게 열심히 살긴 했는데 뭔가 더 현명하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중략) 그런 것(국가적 지원)들을 더 초기에 알아서 했으면 집안 형편이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을 때도 있어요. (참여자 A)

사회가 엄마를 미워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 나는 가족지원 못 받고 (결혼을) 가겠구나. 솔직히 직업 선택조차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저도 지원을 잘 받았으면 전문대학원 준비하고 싶었고, 회계사든 노무사든 세무사든 준비하고 싶었는데, 그런 거를 못 했고. 또 결혼할 때 나도 집에서 1억씩 해줬으면 나도 서울에 집 살 수 있었을 거고. 그런 식으로 자꾸 아쉬운 생각이 저를 계속 부모를 미워하게 만드는 주변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참여자 D)

② 부양 대상으로서 가족에 대한 부담감

모든 연구참여자는 전적으로 자신의 근로소득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었다. 자신을 책임질 경제적 능력을 획득하였음에도, 가족들에 대한 이미지를 물어보았을 때 ‘부양해야 할 대상’ 또는 ‘부담감’으로 작용한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참여자 A는 다른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자신을 비관적으로 생각하였다. 가족에 대한 부양 부담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정서겠지만, 빈곤가구에서 성장한 청년들에게는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감에 심리적 독립을 하기 힘든 상황으로 파악되었다.

(가족들이) 약간 부담으로 다가오죠. 왜냐하면 이걸 되게 나쁜 생각일 수 있지만 다른 친구들은 그런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진짜 안 가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왜 그래야 돼?’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 때가 있어요. 그럼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 같아요. (중략) 그런 걸(형이 부모님께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 듣기 시작하면 이제 나도 해야 될 거 같은 부담이 주어질 거 같아서 그냥 그런 정도로 흘러들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A)

그냥 완전히 (가족은) “부양해야 될 대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게 주된 생각이예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가서 보면 좋고 그런데 반갑고 이런데, 제일 처음 들은 게 물어보시면 그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C)

2. 빈곤을 벗어난 이후의 삶

1) 자기수용적 모습

(1) 빈곤 탈출에 대한 긍정

① 독립으로 인한 만족

타인의 도움 없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스스로 돈을 번다는 것, 즉, 독립 자체가 현재 삶을 긍정하는 요소가 되었다. 참여자들 대부분이 본인의 직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데 충분한 돈을 벌 수 있고 남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점에 가장 만족해하였다. 수급자 시절과 소득 활동을 충분히 하지 못했던 학생 때와 비교해 '자립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에 큰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인이 되면 어떻게든 제가 적당히 조절해서 다른 일을 해가면서 생활을 병행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돈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좀 좋았던 측면이 (있어요). (중략) 일단 (직업 만족도에 대해) 제일 큰 거는 말씀드렸던 대로 돈이 크고요.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참여자 B)

많이 벌진 못하는데, 그 점이 만족도가 제일 높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된다는 거. (참여자 C)

② 안정적인 삶 성취

또한, 참여자 A는 수급 경험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갈망하였고, 그러한 갈망을 현재 직업(공공기관 사무직)이 충족시켜주고 있다는 것에 크게 만족하였다. 수급자 시절 불안정한 생활로 인해 휴식조차 취할 수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아무래도 수급자로 살다 보면 안정적인 삶에 대한 갈망이 되게 커지기 때문에. 좀 (정년이) 보장된다고 보니까 사람들 간에도 서로 스트레스 쌓이게는 많이 안 하는 거 같아요. (중략) 안정적인 삶을 산다거나 행복에 더 많이 연결이 되는 거 같아요. 그냥 충분히 쉴 수 있으니까. (참여자 A)

③ 계층 이동을 통한 자신감

참여자 A는 수급에서 탈수급으로 자신의 경제적 계층을 상위로 이동한 것에 자신감을 얻었다 언급하였다. 또한, 타인에게 자신의 경제적 사정과 경제적 지위를 드러낼 수 있게 돼 자립 전에 타인과 비교하며 위축된 심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뭐 계층적인 것도 그렇고, 그리고 타인들한테 내가 뭘 한다 말을 했을 때 그냥 뭔가 좀 자신감이 있는 부분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으니까. (참여자 A)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소득 활동을 통해 탈수급했다는 사실 자체에 만족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 경험으로 느낀 불안감, 박탈감 등이 해소되어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는 것 자체가 그들에겐 큰 의미로 다가옴을 알 수 있었다.

(2) 삶의 방향성과 일치된 직업

수급 경험으로 정립한 자신의 삶의 방향성 즉,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거나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가치관에 맞춘 직업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 직업적 만족뿐만 아니라 자립 이후 삶의 만족에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공공에 대한 업무를 좀 더 하고 싶었는데. (중략) 어떻게 보면 (지금 하는 일이) 선한 영향을 미친다고 제가 생각해버리면 아무래도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거랑 연관이 많이 돼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만족도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참여자 A)

그냥 원래 이 직업 찾으려고 했던 이유가 있잖아요. 이게 맞는 일을 맞게 돼야 한다. 저는 지금 **재판부에 있는데 그러면은 다 돈 달라는 애긴데. 이 돈을 누가 가지는 게 맞냐 사실 이게 주된 판단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것들을 (옳게) 만드는 거 그러면 재밌더라고요. (참여자 C)

2) 기대에 못 미치는 현재와 삶에 대한 부정

일부 참여자는 현재 자신이 이룬 결과, 즉, 현 직장이 자신의 기대나 목표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참여자 A는 경제적 계층 이동, 안정적 삶을 성취한 것에는 만족하였으나, 본인이 목표로 하였던 직업보다 현 직업이 발전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여겨, 현 직업에 대해 내심 불만족스러운 양가감정을 보여주었다. 참여자 D는 취업 시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고 충분한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자신이 만족스러운 성취를 이루지 못한 것을 한탄하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은 기대보다 못한 성취를 빈곤했던 자립 과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인식하여, 경제적인 자립을 성취하였으나 빈곤한 가정 사정으로 인해 목표와 기대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피해의식처럼 내면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면의식은 불만족스러운 상태를 넘어서 자신의 삶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우울

감을 보였다. 부모님의 고생을 인정하면서도 부모님의 빈곤이 결과적으로 자신의 삶을 힘들게 하였다고 생각해 자신의 삶, 인생 자체를 부정하는 형식으로 도출되었다.

원래 공무원 되고 싶었으니까 내가 원래 목표했던 바에 비해서는 좀. 당연히 (직업이) 만족스럽지만 그래도 그냥 그 사무관이 되고 싶었던 마음 때문에. (중략) 아쉽다고 하면은 평생 가도 이제 이 정도겠구나 생각이 들 때. 왜냐하면 이게 안정적인고 괜찮은 만큼 뭔가 엄청난 걸 할 수 있는 직위는 아니다 보니까. 근데 사무관이 되면 그래도 5급이 되고 4급이 되고 그렇게 올라가면서 내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라는 게 커지면서 얻는 그런 만족도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만족을 얻기 어려울 수 있겠죠. (참여자 A)

(회사에) 더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가 나에게 시간과 돈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좀 더 간판이 멋있는 회사에 다닐 수 있었을 텐데 나에게 시간이랑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생각할 때 성에 안 차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지금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이 생겼고 지금도 솔직히 좀 마음이 답답해요. (참여자 D)

(탈수급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사회가 만드는 그 자기만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로서 복지정책으로 이 사람을 사람 구실을 하게 만들었습니다.'란 의미는 월 200 받는 그 수준밖에 못 끌어내요. (중략) 월 200 버는 게 그게 진정한 의미의 탈수급인지도 모르겠고요. (참여자 D)

표현은 안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사회에서 가르치지만, 이런 생각도 가끔은 들어요. 나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정말 합의에 의해서 나온 사람이 아닌데, (부모님께서) 고생한 건 알겠는데, 지금도 살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고요. 태어나고 싶지도 않았고요. (참여자 D)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빈곤의 세대 간 이전을 탈출한 청년들의 자립 과정과 빈곤을 벗어난 이후 삶의 핵심경험을 탐색하여 빈곤 가구 청년의 진정한 자립을 위한 개입 방안을 마련함에 있다. 특히,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부의 대물림, 세대 간 계층 이전 등 불평등을 촉진하는 가족의 경제적 지원 없이 성장한 공통적 배경을 지닌 청년들이 어떠한 삶의 방향성과 경험을 기반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성장기에 경험한 빈곤은 청년의 삶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제이자 빈곤한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 학업에서 성취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추진력으로 작용한 점을 발견하였다. 특히, 유년기에 겪은 불안정한 경제 사정과 돈이 없어 이루지 못했던

욕구들의 반발로 성인이 된 후 고소득,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겠다는 갈망을 절실히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인 기제로서 작용하여 앞에서 이야기한 노력하는 자세의 동기부여가 되었다. 자신이 처한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내성과 탄력성(resilience)을 기르고 곤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의에 대한 관념 정립'과 '선한 영향력' 등 더욱 고차원적인 내적 자원을 획득하기도 하였으며 자신 고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과거보다 더 나아지고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고, 경제사정이 비슷한 친구들과의 교류로 유대감을 느끼고 이를 통해 부정 심리를 회복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빈곤은 자립과정에서 장벽으로서 작동하기도 하였다. 빈곤으로 인해 직업 선택에 있어 기회가 한정되었고, 취업 준비 시기에 휴식의 부재로 고단한 삶을 살아오므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족, 부정적인 심리성향, 가족에 대한 원망의 형태를 드러냈다. 또한, 빈곤은 자립 과정에서 심리적 위축, 정서적 불안감, 민감함, 두려움 등의 심리를 발생시켰고 이는 삶에 대한 불만족,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 염세주의적 시각을 가지게 하였다. 특히,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감은 빈곤 청년을 대상으로 수행한 질적 연구결과(최상미, 2019; 정수남 외, 2012)에서도 나타난 바로, 본 연구의 사례에서는 가족을 원망하게 만들었고, 빈곤으로 인해 인간관계를 한정시킴으로써 사회적 관계 및 교류에서의 어려움을 겪게 하였다. 따라서 빈곤 가구의 청년들이 자립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제는 강화하고, 장벽으로서 여겨지는 어려움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대책과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년으로서 자립한 이후에는 자립 과정에서 가졌던 본인의 기대감을 성취했는지 여부에 따라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모습이 다르게 나타났다. 경제적 독립과 본인이 원했던 직업을 성취한 경우 삶에 대한 만족감과 수용성이 높았고 경제적 계층 이동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으나, 자립 과정에서 가졌던 기대감보다 못한 성취를 가진 경우 자립 후의 삶에 대한 불만, 미충족, 비관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자립 과정에서의 자신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재는 자신의 욕구보다 미충족된 상태라도 이후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언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청년기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진로 설계 및 취업 지원이 요구된다.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서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는 진로 탐색과 설계, 체험 활동 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연구참여자들(참여자 A, C, D)은 직업 선택의 폭이 제한되었고 고시 등 장기간의 경제적·시간적 투자가 필요한 과정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어 바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장에 취직하거나 장학금 및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학교에 진학하는 등 선택의 기회가 한정되었다. 따라서 빈곤가구 청소년·청년의 진로에 대한 더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고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더불어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 시 장기적인 시각과 경제적 지원 확대가 요구된다.

현재의 단기간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소극적 금전 지원은 단시간 내 취업가능한 직업군만을 고려하도록 한정시킨다. 다수의 연구참여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직업 선택의 기회가 한정되고, 취업 준비 기간동안 아르바이트 등으로 휴식 없는 삶을 살았다고 토로하였다. 따라서 원한다면 취업 준비가 길게 필요한 직업군도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 기간과 지원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구직준비 과정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취업한 청년들이 꾸준한 진로 컨설팅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본 연구결과, 일부 참여자들은 자신이 원했던 직업을 갖지 못하였지만,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다시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인 현재에 머물게 된 자신의 삶을 불만족스럽게 여겼다. 따라서 청년기 초기 자신이 원했던 직업을 갖지 못하였더라도 교육 및 훈련, 이직, 창업 등을 통해 제2, 제3의 기회를 부여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주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빈곤 가구 청년들이 가진 부모에 대한 부양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빈곤 가구 청년들이 짊어진 과도한 부양 부담은 부모에 대한 원망으로도 이어져 가족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미래관도 불투명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선 대표적 공공 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최저생계비 기준을 상대적 빈곤선에 따라 지급하는 등(안병영, 정부권, 신동면, 양재진, 2019) 발전을 거듭해왔다. 또한, 최근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생계급여에서는 완전히 폐지할 계획을 발표하며(보건복지부, 2020.08.10.), 부양의무자의 부담을 감소시키려 노력하였다. 그렇지만 청년들의 부모 부양 부담은 여전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급여에서도 역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의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수급자의 선정 및 급여액의 결정에 있어 가구 단위 보장에서 개인 단위 보장으로의 단계적 개편이 필요하다. 현재는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34세 이하 청년에 한해 ‘소득기준 완화적용 부양의무자’ 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를 시행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1b). 그러나 금액 기준이 높지 않다는 점³⁾과 청년의 경제적 자립이 지연되고 있는 현 시국에서 34세까지 적용한다는 점은 빈곤 가구 청년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한 결과라 판단된다. 가족 단위 보장이 가족 간 갈등 조장, 가족해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본 연구와 선행연구(이영재, 노소영, 2019)에서도 나타났듯이 청년 가구원의 취업으로 인한 ‘소득인정액의 증가’가 대표적 탈수급 요인 중 하나라는 점에서 빈곤한 청년에게 가족 부양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개인의 불운인 동시에 빈곤이 대물림될 가능성을 높이기에 개선이 시급하다.

3)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에 해당하는 값과 306만원 중 더 높은 값 미만에 해당하면 부양능력 없음에 해당(보건복지부, 2021b)

셋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 연구결과 청년들은 빈곤을 탈출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과 비교하며 심리적 위축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삶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이로 인해 인간관계가 한정되고 자신과 경제적으로 비슷한 사람들과만 교류하려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휴식이 없는 삶을 살아오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고단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빈곤 가구 청년들의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건강한 노출과 해소가 필요하며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도 자신의 힘으로 이룬 성취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진심으로 이를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청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이목이 높아지면서 온라인 청년센터, 서울 청년 포털, 청년심리지원서비스(서울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청년에 대한 상담제도들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상담·심리지원 서비스는 지역별로 상이하고 대부분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으며 서비스의 질 및 공급자의 수도 지역별 편차가 크다. 따라서 공공기관 지원과 더불어 상담바우처를 제공함으로써 민간 기관에서도 상담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참여자 C는 자신과 유사한 사정을 가진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 내면의 고민과 개인 사정을 공유하고 공감받을 수 있어서 심리적·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빈곤 가구 청년들이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 활동 지원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통해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연구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선행연구들(정수남 외, 2012; 최상미 외, 2019)이 현시점에서 빈곤한 ‘빈곤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년 빈곤을 타개하려는 방안 마련에 그쳤지만, 본 연구는 경제적 자립을 이룬 빈곤 탈출 후의 청년의 삶은 어떠한가 탐색했다는 것이다. 특히, 빈곤 탈출이라는 시간적 경계를 기점으로 빈곤 탈출 이후에도 충족되지 않은 욕구, 빈곤이 이들에게 미친 장기적 영향과 현재 삶의 만족도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빈곤 가구 청년의 온전한 자립을 위한 정책적·실천적 제언을 도출했다는 것에 차별성이 있다. 또한, 기존의 양적 및 질적 연구들이 아동·청소년기 빈곤의 장기적 영향에 대해 노동시장 이행에서의 곤란 등 청년기 성취와 관련되어 부정적인 영향만을 강조(최상미 외, 2019; Lesner, 2018; Duncan, Ziol-Guest & Kalil, 2010; Johnson & Schoeni, 2011)한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측면을 함께 관찰한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른 후속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방식으로 인터뷰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같은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참여자의 학력 수준에 있어 동질성이 높아 연구결과의 다양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다는 데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 다양한 교육 배경을 지닌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된다면 청년들의 학력 특성에 따른 경험과 결과를 얻어 더욱 풍성한 제언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성별, 연령, 지역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은 고려되지 못하였다. 국내 선행연구 결과들이 뒷받침하고 있듯, 빈곤의 세대 간 탈피가 어려운 현시대에서(노혜진, 2012; 손병돈, 2017; 최필선, 민인식, 2015) 아동기 혹은 청소년기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자였으나 탈수급한 청년 사례 자체가 희소하였으며 연구참여자격에 명확히 부합하는 청년 사례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 후속연구에서는 지역, 연령 등 다양한 청년 집단 내에서의 구체적 비교, 성별에 따른 차이점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교성, 노혜진 (2011). 빈곤의 세대간 탈피 경험. *사회복지연구*, 42(1), 243-278. doi:10.16999/kasws.2011.42.1.243
- 김비오 (2019). 청년가구의 주거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9(3), 408-436. doi:10.15709/hswr.2019.39.3.408
- 김문길, 김태완, 임완섭, 정은희, 김재호, 안주영, 김성아, 이주미, 정희선, 최준영 (2017). **청년빈곤의 다차원적 특성 분석과 정책대응 방안** (연구보고서 2017-10). 세종특별자치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지혜, 김희주 (2018). 여성 한부모의 자립 경험과 강점 자원에 대한 연구: 사별, 이혼, 미혼모 가족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9(4), 159-193. doi:10.16999/kasws.2018.49.4.159
- 김태완, 최준영 (2017). 청년의 빈곤 실태: 청년, 누가 가난한가. *보건복지포럼*, 2017(2), 6-19. doi:10.23062/2017.02.2
- 김희성 (2002).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립준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노혜진 (2012). 빈곤가구 자녀의 노동시장 진입과정 유형화. *사회복지정책*, 39(4), 109-134. doi:10.15855/swp.2012.39.4.109
- 변금선 (2012). 청년층의 근로빈곤 요인에 관한 연구: 고용불안정과 고용상태가 빈곤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4(3), 257-279. doi:10.20970/kasw.2012.64.3.011
- 보건복지부 (2021a).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기초생활보장.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50109&PAGE=9에서 2021년 11월 14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21b).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0&CONT_SEQ=362922에서 2021년 9월 1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20.08.10.). 보도자료: 앞으로의 3년, “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8954에서 2021년 9월 1일 인출.
- 손병돈 (2017). 한국에서 빈곤은 세대간 이전되는가?. *사회보장연구*, 33(4), 163-184.
- 신혜령, 김성경, 안혜영 (2003). 시설퇴소아동 자립생활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6, 167-193.

- 신혜령 (2001). 시설청소년의 자립준비에 관한 연구: 시설청소년과 보육사들의 인식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1, 90-124.
- 안경천, 김현진 (2018). 미혼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지지가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3(1), 101-118.
- 안병영, 정무권, 신동면, 양재진 (2019).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 서울: 다산출판사.
- 안희란, 이용교 (2020). 시설퇴소 청년들의 자립지원교육에 대한 요구. **청소년복지연구**, 22(2), 61-84. doi:10.19034/kayw.2020.22.2.03
- 오수생, 변상해 (2012). 가출위기청소년의 자립생활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 체계적 변인 연구: 쉼터 청소년을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7(2), 195-205. doi:10.16972/apjbve.7.2.201207.195
- 우주형 (2006).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의 법제도화 과제.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7(4), 261-281. doi:10.19049/JSPED.7.4.14
- 이상정 (2021). 자립준비 청년 지원 체계 개선의 쟁점. **보건복지 Issue & Focus**, 410, 1-5.
- 이영재, 노소영 (2019). 청년 가장에게 날개를 달다! 취업한 자녀의 부양부담감 완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기준 개편방안. **2019년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자료집: 한국의 청년은 행복한가?**, 79.
- 정연수, 이영선, 김승현, 박원희 (2014). 성인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근거이론적 접근. **지적장애연구**, 16(1), 245-281.
- 정수남, 권영인, 박건, 은기수 (2012). '청춘'밖의 청춘, 그들의 성인기 이행과 자아정체성: 빈곤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와 사회**, 12, 35-103. doi:10.17328/kjcs.2012.12.1.002
- 최아람 (2012). 자립과 자율. **지역사회**, 66, 46-48.
- 최상미, 유효은, 김한성 (2019). 당사자의 목소리로부터의 빈곤 청년의 삶에 대한 탐색. **사회과학연구**, 26(2), 32-58. doi:10.46415/jss.2019.06.26.2.32
- 최은영, 이봉조 (2014). 서울시 청년 주거빈곤 실태. **한국지역지리학회 학술대회발표집**, 56-61.
- 최필선, 민인식 (2015). 부모의 교육과 소득수준이 세대 간 이동성과 기회불균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2(3), 31-56.
- 홍미연, 조미경 (2018). 알코올중독자의 회복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2(1), 135-162.
- e-나라지표 (2021a). 취업률 및 진학률. e-나라지표 웹 사이트 https://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1520에서 2021년 11월 14일 인출.
- e-나라지표 (2021b). 취업자 수/실업률 추이. e-나라지표 웹 사이트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63에서 2021년 8월 24일 인출.

- Becker, G. (1981).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hase-Lansdale, P. L., & Pittman, L. D. (2002). Welfare reform and parenting: Reasonable expectations. *The Future of Children*, 167-185.
- Duncan, G. J., Ziol-Guest, K. M., & Kalil, A. (2010). Early-childhood poverty and adult attainment, behavior, and health. *Child development*, 81(1), 306-325. doi:10.1111/j.1467-8624.2009.01396.x
- Haushofer, J., & Fehr, E. (2014). On the psychology of poverty. *Science*, 344 (6186), 862-867.
- Heale, R., & Twycross, A. (2018). What is a case study?. Evidence Based. *Nursing*, 21(1), 7-8.
- Hill, M. S., & Sandfort, J. R. (1995). Effects of childhood poverty on productivity later in life: Implications for public polic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7(1-2), 91-126. doi:10.1016/0190-7409(95)00005-W
- Johnson, R. C., & Schoeni, R. F. (2011). The influence of early-life events on human capital, health status, and labor market outcomes over the life course. *The BE journal of economic analysis & policy*, 11(3). doi:10.2202/1935-1682.2521
- Lesner, R. V. (2018). The long-term effect of childhood poverty.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31(3), 969-1004. doi:10.1007/s00148-017-0674-8
- McLoyd, V. C., Jayaratne, T. E., Ceballo, R., & Borquez, J. (1994). Unemployment and work interruption among African American single mothers: Effects on parenting and adolescent socioemotion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65(2), 562-589. doi:10.1111/j.1467-8624.1994.tb00769.x

ABSTRACT

A case study on the independent living process of young people from poor households and their life after their exit from poverty

Choi, Hayoung* · Lee, Somin** · Lee, Eunhy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process of self-support of young people who had experienced childhood poverty and their life after achieving self-support. For this purpose, an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four young people who had succeeded in becoming economically independent after having formerly being recipients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System. As a result of the interview analysis, the experience of childhood poverty was found to be a promoting mechanism to move on from poverty, and at the same time, poverty acted as a barrier to independent living. The poverty of childhood helped establish a sense of direction and identity of life and helped develop resilience to overcome adversity through positive psychological attitudes and behaviors such as hope and bonding. On the other hand, as a barrier, poverty caused limited opportunities and a lack of rest, emotional anxiety, and fear of exposure to weakness. Furthermore, poverty brought with it a burden of support for the family, which caused difficulties in growing up as an independent individual rather than being subordinated to their parents.

Key words: young people, young people of poor household, case study

* Yonsei University, PhD Student, First author

** Yonsei University, PhD student, Corresponding author

*** Gwangjin Welfare Foundation, Research assistant, Co-author